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1월 23일 수요일 (주간) 제353호

법석 초대 **서옹 스님** 백양사 방장

"생사문제 해결은 화두가 열쇠지. 죽을 날짜가 코앞에 닥친 사형수가 도망가듯이, 화두에 들어 '이놈이 뭘까' 자꾸 의심하면 긴장이 한 덩어리로 돼 의식자체를 초탈해버리는 눈이 일시에 열려"

"본래 자기의 모습이 참사람이야. '참나'를 되찾으면 나와 남의 대립, 시간과 공간의 일체를 초월해"

☞ 자세한 내용은 12·13면

불교NGO, 국제지원 활발

진각종·경불련 – 네팔서 교육불사 JTS·재가연대 – 인도불교 부흥 후원

불교NGO들의 국제 지원사업이 어느해보다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진각종과 경불련, 한국불교도움기구가 부처님의 탄생지인 네팔의 교육사업에, JTS와 참여불교재가연대, 우리는 선우 등은 인도불교 및 티베트 난민 지원사업에, 진각복지재단은 스리랑카 복지지원 사업에 각각 나선다. 지구촌에 불국정토를 실현하려는 불교NGO들의 이같은 보살행은 한국불교의 세계화 및 참여불교운동 활성화에 불을 붙일것으로 보인다.

경불련 '이웃을 돕는 사람들'은 5월경 네팔 직업훈련센터 졸업생을 중심으로 공동작업장과 허브와 버섯 등을 키울 실험농장을 건설해 네팔인 자립경제의 기반을 다진다. 또한 올 상반기 내로 초등학교 설립인가를 받아 무료교육에 나설 계획이다.

불교기아도움기구는 최근 '자비의 종' 모금운동을 통해 마련한 3만불의 기금으로, 2월중 네팔 포카라 지역에 중학교 건립을 위한 첫삽을 뜬다. 년말까지 학교가 완공되면 네팔어린이들에게 컴퓨터, 한국어 및 영어, 직업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각종은 네팔 현지에서 운영중인 컴퓨터 교육과 장학사업을 포교에 연결, 네팔 불교청년회의 조직을 활성화시킨다. 현지 포교와 인재 양성을 위해 네팔과 스리랑카 학생들을 3월경 한국에 초청, 대학교육도 시킬 방침이다.

단기출가한 어린이들 김천 직지사는 14~19일 동안거 어린이 단기출가 수련회를 개최했다. 전국에서 모인 34명의 어린이들은 참선, 다도, 명심보감 등을 배우며 겨울방학을 뜻깊게 보냈다. 사진은 17일 행다를 진지하게 익히고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 직지사=고영배기자

인도불교 재건을 위한 사업과 티베트 난민 돕기도 본격화 된다. 인도에 수지타아카데미, 지바카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JTS는 상반기내에 기술중학교를 완공하고, 하반기에 전정각산 명상센터 등 8대 불교성지 각각의 특색에 맞는 불사에 들어간다.

참여불교재가연대와 우리는선우, 종단협, 불교방송, 불교텔레비전, 현대불교신문 등 6개기관은 '인도불교 돕기'를 구성, 올해부터 인도 불가촉천민 불교개종운동을 지원한다. 이들 단체들은 범세계불교교단우의회(TBMSG)가 보내온 사업 계획을 보완해 2월중 첫 지원 사업을 확정한다.

티베트불교 지원사업에도 나선 재가연대는 초파일 무렵 국내 종교 대표들의 다람살라 방문에 이어 티베트 난민촌 돕기, 티베트 학생 유학 초청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스리랑카 사회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진각복지재단은 5월경 한국문화홍보관을 건설해 한국 문화 알리기에 나서고, 하반기에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사를 파견한다.

재가연대 정웅기 국장은 "올해 불교NGO들의 인도 네팔 등의 지원활동은 힌두교도들의 조직적 탄압과 열악한 재정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들국가의 불교가 되살아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자동차로 경내지 통과 관람객 아니다" 판결

서울지법 천은사 관련 조계종 "빠른 시일내 상고"

문화재 관람 의사 없이 자동차를 타고 사찰 경내지를 통과하는 도로를 이용할 경우 '관람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제10민사부(재판장 석호철)는 17일 참여연대가 천은사를 상대로 한 2심 소송에서 합동징수 방법과 경내지 개념에 대해서는 조계종의 입장을 인정했지만, 원고인 전동일이 도로를 이용한 이동과정이었던 것인 만큼 문화재관람료 1,000원을 돌려주도록 하라는 제한적인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도로개설로 인해 수행환경과 문화재보호가 지장을 받는 천은사의 피해는 도로 점유자인 전라남도와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판결문중 천은사 도로가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관통도로라는 점을 간과하고 공익도로라는 사실만 부각한 이번 판결로 인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와 전승에 대한 악영향이 미칠 것이다"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내 대법원에 상고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도 17일 논평을 통해 "일주문을 경계로 한 사찰의 관람료 징수나 통합징수의 부당성 등이 충분히 지적되지 않는 제한적인 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원우 기자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포교사단의 장의봉사

일본인은 죽으면 종교를 막론하고 사찰로 가지만, 한국인은 산으로 간다. 일본은 2차대전 패망후 8천명의 선교사가 들어왔지만 여전히 95%의 국민이 불자인 나라다. 우리는 같은 시기에 80여명에 불과한 선교사가 입국했지만, 기독교계통의 선교성과는 불교세를 위협할 정도로 커졌다. 일본의 사찰들이 장의문제를 도맡은 반면 한국의 사찰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할 것이다.

인간에게 생사(生死)의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나 그동안 불교계는 망자(亡者)와 유족들을 위한 장의(葬儀)포교를 소홀히 해왔다. 따라서 임종시 장의로 인해 개종하는 불자들이 부지기수였던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대중)의 장의봉사특별위원회는 최근 〈장의봉사 의식집〉을 발간하고, 다음과 같은 장의염불봉사 지침을 정하는 등 본격적인 장의포교에 나서고 있다.

"유족 편의를 우선해 열과 성을 다해 봉사한다.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유족이나 필요이상의 불편이나 폐를 끼쳐서는 안된다. 상장례 절차에 조언은 하되,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는다."

전국 18개팀 250여 포교사로 구성된 장의봉사특별위원회가 장의염불봉사에 나선 것은 2년전. 불교계의 무관심 속에 불자들이 타종교의 장의선교로 개종하는 사례가 점차 빈번해지자, 포교사들은 가장 힘든 장의포교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 평생 불심을 쌓아온 불자들이 스님과 불자들의 위로를 받지 못한 채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것 역시 포교사로서 외면할 수 없는 포교과제가 아닐 수 없다.

생업에 기는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 스님들로부터 의식교육을 받고, 매달 평균 5~10여회 연고를 맺고 있는 병원과 영안실을 찾아 장의염불 무료봉사에 나섰다. 장의염불은 스님들만 하는 것으로 아는 인식부족과 상업적인 장의업자로 오인받는 어려움 등 많은 난제를 해결하며 가장 효과적인 포교방편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회원일 장의봉사특별위원장은 "장례발생시 망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사회에 회향하는 가장 뛰어난 포교"이라고 말했다.

김재경(취재 1부 차장)

태고종 분규 '마무리'

총무원 – 비대위 '징계무효' 등 합의

태고종이 1년여를 끌어온 분규를 마침내 마무리짓고 화합을 이뤄냈다. 태고종 총무원(총무원장 운산)을 대표한 혜공스님과 비상대책회의(의장 철화)를 대표한 지홍스님은 15일 서울 성북구 총무원청사 회의실에서 협상을 갖고 5개항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000년 11월 23일 개회된 제79회 중앙종회 이후 현재까지 있었던 모든 종무행정을 인정하고 이후 사태와 관련한 일체의 시비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또 징계부분을 원천 무효화하고 사찰 주지직과 중앙종회의원직에 복직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비상대책회의는 17일 오전 11시 해단식을 갖고 창신동 원각사에 걸었던 현판을 내렸다.

태고종은 이어 17일 신촌 봉원사에서 제84회 임시중앙종회를 열어 '종단화합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종단소요사태 처리를 위한 특별법을 폐기하고 이 법에 의해 징계받은 자체를 원천무효화시켰다.

◇15일 합의문에 서명하고 화합의 악수를 나누고 있는 혜공(오른쪽) 스님과 지홍 스님.

태고종은 이날 종회에서 양측의 진정한 화합의 모습을 대내외에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비상대책회의측 인사가 다수 포함된 승정, 부원장, 부장 인사를 모두 인준함으로써 종단 화합인사를 단행하였다. 또 원로회의법 등을 새로 제정하는 등 제도 개혁 차원에서 일부 종헌 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2·3면 이경숙 기자

"기념관 3월 착공 … 사면 희망적"

조계종 정대 총무원장 15일 신년 기자회견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5일 4층 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종단 출범 40주년을 맞아 종단 안정과 화합, 종단의 수행가풍 진작과 개혁, 사회적 역할 증진을 통해 민족종교, 수행종단으로서의 정체성과 사회적 위상을 제고 하겠다"고 밝혔다. 정대스님은 이를 위해 "동안거 해제(2월 26일) 이후 3월 조순경 종정추대가 이뤄지도록 하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3월에 착공하여 내년 중순에 준공시키겠다"고 말했다.

조계종의 묵은 현안인 조태분규사찰 문제와 종단 징계자 사면복권에 관해서도 스님은 '희망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조·태분규 사찰 문제와 관련해 스님은 "조계종 집행부는 내부적으로 윤곽을 다 짜놓고 있는 만큼 대동화합 차원에서 태고종 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징계자 사면복권에 대해서도 "사면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여 종헌개정안의 처리를 3월 종회때 요청하고, 새로 종정스님이 추대되면 단안을 내려달라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2·3면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제7회 신행수기 시상식 2월 2일(土) 오후 2시 조계사 문화교육관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결혼과 종교**

1. 결혼에 있어 종교가 어느 정도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가.
   ①매우중요하다 ②중요하지 않다 ③반반이다.
2. 부부는 종교가 같아야 한다고 보는가.
   ①반드시 같아야 한다 ②가급적이면 같아야 한다.
   ③달라도 상관없다 ④달라도 서로 존중해야 한다.
3. 불자님은 결혼을 위해 개종할 수 있는가?
   ①있다 ②없다

설문 참여: 1월 24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54호 9면에 싣습니다.